공항 이전·한전공대 등 주춤…'혁신도시 시즌 2' 흔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광주시·전남도 삐걱대는 상생에 지역현안 줄줄이 발목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44건중 4건만 완료하고 스톱
"시·도 지방세 싸움 멈추고 공동발전기금부터 조성해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발전 현안사업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 44건 중 현재 4건만이 처리되는 등 시·도 상생을 통한 '혁신도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공항 및 군공항 이전과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 등 시·도의 양보와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한 지역 현안사업들도 줄줄이 발목이 잡혀있고, 신규 공공기관 이전 등이 포함 된 '혁신도시 시즌2'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도불협화음,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도 발목**=광주시와 전남도가 불협화음을 내는 동안 빛가람혁시도시 이전공공기관 등이 건의했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작업도 대부분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혁신도시 실무위원회 건의사항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4건 중 완료된 사업은 ▲aT청사 주차장 출입구에 도로안전장치 설치 ▲호혜원 양돈농가 폐업 ▲중앙호수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 등 4건에 불과하다. 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차선 정비 ▲혁신도시·광주간 통합학군제 ▲초등학교 전학 선택제 ▲혁신도시 외곽도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앞 입구 변압기 이전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검진 설비 추가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 지원기간 확대 등 7건은 이전기관 등의 요구와는 달리 추진 '불가' 판정을 받았다.

◇**'말로만 상생' 지역 현안사업 줄줄이 발목**=시도 상생이 어긋나면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혁신도시 시즌 2' 준비 작업도 흔들리고 있다. 과거 시·도상생을 통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을 비롯해 16개 공공기관을 나주로 이전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동력은 국내 다른 혁신도시와는 달리 광주와 전남 2개 지역이 공동혁시도시 조성에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었다.

앞서 시·도는 ▲광주 민간공항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광주 군 공항 이전 협력 ▲한전공대 설립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성공 개최 협력 ▲제12회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 협력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 설치 운영 ▲한국학 호남진흥원 운영 등 9가지 신규 협력과제를 선정했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은 전남의 미온적인 입장 탓에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고, 혁신도시의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와 재단 설립도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복합혁신센터와 재단을 애초 약속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건립·설립하자는 입장이지만, 전남도는 기금 조성이 늦어지고 있으니 전남도 예산으로 이들 기관과 건물을 건립·설립하고 직접 운영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혁신도시 발전기금부터 조성해야"**=최근 광주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에서 과거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맺었던 협약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06년 시·도는 나주에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이전기관 등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모아 쓰자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서'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이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 4년간 나주시세와 전남도세를 합쳐 2925억원(이전 공공기관 포함 혁신도시 전체)의 지방세가 쌓였다고 주장하지만, 전남도는 537억원(이전 공공기관 납부액)에 그친다고 반박하고 있다. 광주시는 과거 사용한 지방세를 소급해 공동기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올 해 지방세부터 공동기금으로 모으자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교수는 "당장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시도가 지방세 다툼만 할 수 없다"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도가 상생하고, 올 해 지방세를 시작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혁신도시 시즌2'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대통령 자문위 산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낮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 위원회와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참석 위원들과 함께 경내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 돌파구 찾기 힘드네

광주시, 3일째 현대차와 협약서 재작성 위한 사전 논의
적정 임금·노동시간·노사 책임경영제 등 의견차 여전

광주시가 현대자동차를 설득해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투자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다시 협상에 나선 광주시는 현대차와 3일째 협약서 작성을 위한 사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3일 시가 지역노동계와 작성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추진단합의문'(이하합의문)으로 인해 현대차의 불신이 커지면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광주시와 지역노동계의 합의문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기보다는 그 가치와 미래 지향성을 인정하면서 제1투자자인 광주시와 제2투자자이면서 동시에 자동차 생산을 위탁하는 현대차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투자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노동계와 현대차 사이에서 충분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전격적으로 이달 내에 협약 체결을 합의하게 된다면, 이를 최종 검토하는 광주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역노동계가 동의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협약서에는 합의문에 담겨 있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에 대해 일정 수준에서의 언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가 노동계와 작성한 합의문에서는 적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근무로 하고, 임금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또 당초 현대차가 요구해 합의문에 포함됐던 '5년 동안 단체협약을 유예하고, 임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올린다'는 문구도 없어졌다. 이어 '임금교섭과 납품단가를 연동지어 사고하며, 적정임금을 가능하게 하는 적정단가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 작동하게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원하청 관계 개선, 노동이사제 등을 의미하는 노사 책임경영에 대해서도 현대차와 지역노동계 간 의견차가 상당하다.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 결의에 나선 것도 부담이다. 지역노동계로서는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협약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민주노총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명분과 실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던 정치권에서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약을 재촉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동조합총연맹 4분기 고위급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금 광주에서는 사회 통합형 '광주형 일자리'가 막판 협상 진행 중"이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이번주에는 매듭을 꼭 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압박이라는 시각도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 청와대까지 나서 지원 의사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에 대한 불만이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1일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자 내년 상반기 합작법인 설립을 목표로 했지만, 5개월 넘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246) 은행나무

온통 노랑…무엇이 풍경이고 무엇이 그림인가

"가을이면 은행나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집/해가 저무는 날 먼데서도 내 눈에 가장 먼저 뜨이는 집/생각하면 그리웁고/바라보면 정다운 집/어디 갔다가 늦게 집에 가는 밤이면/불빛이, 따뜻한 불빛이 검은 산속에 살아있는 집…"〈김용택 작 '그 여자네 집' 중에서〉

가을이면, 가로수 은행나무 은행잎이 노랗게 쏟아져 내리는 늦가을이면, 나도 모르게 풍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 마음이 센티멘탈해진다. 그깟 은행잎이 뭐라고, 여기 저기 마른 잎들이 나뒹구는 노란 잎이 뭐라고 만추의 서정은 가을앓이 마냥 바스락거리며 밀려드는지. 한동안 마음의 여유 없이 지낸 탓에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건조해진 감수성이 은행나무 아래에 서서 비로소 되살아나는 것인가.

한희원 작 '강과 만추'

올 가을 유난히 은행나무 은행잎이 곱다. 출근길 가로수길은 아예 노란 길. 은행나무 한 그루가 시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이미지가 만들어져 좋은 그림으로 숙성되는 걸 보면 새삼 예술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연을 발견하는 재능이 놀랍기만 하다.

한희원 작가(1955~)의 '강과 만추'(1999년 작)는 가을이면 떠오르는 그림이다. 오래전 화가가 교사이던 시절 여행하듯 통근하면서 마주한 섬진강변 은행나무와 강을 그린 작품으로, 처음 접했을 때의 강한 인상이 두고두고 남을 정도여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강가에 서있는 은행나무, 바람이 불고 있는지 바람결 따라 우수수 쏟아지는 노란 은행잎이 거리에 깔리고 시간과 공간까지도 노랗게 물들여진 작품은 무엇이 풍경이고 무엇이 대상인지 그림을 바라보는 시선이 몽롱하고 뭉클해진다.

침묵 속에 흐르는 강과 우리가 가고 싶은 먼 나라의 동경을 바람과 함께 묘사하고 있는 화가는 "붓의 느낌에도 바람이 있어 붓을 바람처럼 사용하고 싶었다"고 말하는 시인이기도 하다.

〈광주비엔날레 정책기획실장·미술사박사〉